

(은혜와진리교회)

예장 통합 정총 총회장에 림형석 목사

목사 부총회장에 김태영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 차주옥 장로 선출

명성교회 사택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3회 총회가 지난 9월 10일(월) 오후 2시 이리신광교회에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개회됐다.

총회가 열리는 이리신광교회 밖에서는 명성교회 관련 찬반대립으로 혼란한 가운데, 안에서는 차기 총회를 이룰 임원 선출이 진행됐다.

총회장에는 102회기 부총회장이었던 림형석 목사가 자동으로 승계했고, 목사부총회장에는 김태영 목사(백양로교회)가 단독으로 입후보해 1,315표 중 1,207표를 얻어 당선됐으며, 단독으로 출마한 차주옥 장로(명락교회) 역시 1,232표를 얻어 장로부총회장 당선



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총회장이 추천한 임원들 역시 만장일치로 인준됐다. 이들 임원은 서기에 김의식 목사(자유하는교회), 부서기에 조의환

목사(김해교회), 회록서기에 윤미태 목사(전안서부교회), 부회록서기에 최상민 목사(영송교회), 회계에 조준현 장로(영주교회), 부회계에 김미순 장로(예주영락교회) 등이다.

한기총총무협, 교회성장세미나 개최

한국교회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해야



미지립교회, 농어촌교회 등의 현실적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한기총총무협(회장 김경만 목사)가 한국교회의 극심한 쇠퇴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총무협은 지난 8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청라 사랑의교회 박용배 목사를 강사로 모신 가운데 교회성장세미나를 열고 이 시대 한국교회의 역할과 현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대처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펼쳤다.

박용배 목사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부'를 받은 자'라는 의미로 한국교회가 예수님 이름의 비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야 하는데 무작정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인든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면 기뻐하신다. 성경 66권으로 그리스도만 전하면 주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직접 영혼을 구원하신다. 전도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제언했다.

박 목사는 이외에도 자신의 부흥비밀, 부흥사례, 하나님의 응답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이어나갔다.

한편, 한기총총무협은 앞으로도 한국교회에 유익을 주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있다.

예장 합동 이승희 총회장 추대...변화와 희망

관심 모은 목사 부총회장에 김종준 목사, 부서기에 정창수 목사

‘교회의 희망으로 민족의 희망으로 변화하라’란 주제로 예장 합동 103회 총회가 개회됐다.

총신대 사택로 난향을 겪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제103회 총회를 지난 9월 10일(월) 오후 2시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개회하고, 신임 총회장에 이승희 목사(반야월교회)를 선출하는 등 변화와 희망의 총회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교회의 희망으로 민족의 희망으로 변화하라’란 주제로 열린 총회에서는 현 부총회장인 이승희 목사를 총회장으로 기립박수로 추대하고, 김종준 목사(운동산교회)와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 강태구 목사(일심교회)가 맞붙어 최대의 이슈였던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김종준 목사가 143표 중 720표를 얻어 461표를 얻는 데 그친 민찬기 목사



와 250표만을 얻은 강태구 목사를 제치고 당선됐다.

또한 단독으로 입후보한 장로 부총회장인 강희창 장로가 무투표로 당선됐고, 서기에 김종혁 목사, 회록서기에 진용훈 목사, 부회록서기에 박재진 목사, 회계에 이대봉 장로 등도 단독으로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

영예를 안았다.

목사 부총회장 선거와 함께 또 다른 관심사였던 부서기에는 정창수 목사가 605표를 획득해 484표와 342표를 각각 얻은 이형만 목사와 윤익세 목사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밖에 부회계에 이영구 장로도 790표를 얻어 649표를 얻은 분광진 장로를 앞서며 당선됐다.

한장총 여교역자협, 사랑나눔 예배드려

서울역광장 신생교회 해돋는 마을에서

(사)한국장로회총연합회(회장 유종현 목사) 산하 여교역자협의회(대표회장 김희선 목사)는 지난 8월 29일(목) 오전 11시 서울역광장 신생교회(담임 김원일 목사)의 150여명의 성도들이 해돋는마을(이사장 장현일 목사)에서 수요나눔예배를 드렸다.

밥나눔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임형우 전도사의 사회로 여교역자 공동회장 김남심 목사의 기도, 여교역자 서기 황영희 목사의 성경봉독, 총무 구자옥 목사의 봉헌기도, 정라나 목사의 특별찬양, 여교역자 대표회장 김희선 목사의 마 26:69-75 말씀을 본문으

로 한 '회복의 삶'이란 주제의 설교로 이어졌다.

계속된 예배는 담임 김원일 목사의 '술은 마약입니다. 마시지도 말고 권하지도 마시다. 원수같은 술을 끊어버립시다.'라는 금주구호제창 후 열린 복지랜드 이사장 원종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희선 목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백성은 위대하다. 주님은 낮아질 때 우리에게 오신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 하지만 자기의 양심의 찰리는 것을 바로 알고 회개하고 제자가 되었다"며, "우리도 항상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자기의 양심의 찰리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고 당부했다.



1만 서울시민, 자살예방을 위해 한강 밤길 걸어

한국생명의전화-EBS, 2018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 공동개최

한국생명의전화와 EBS는 7일 오후 7시 여의도 한강공원 계절광장에서 '2018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2018 생명사랑밤길걷기는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하루에 36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을 자각하고, 소중한 이들의 자살을 막으며 생명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걷는 전 국민 자살예방캠페인으로 참가자와 자원봉사자 등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생명사랑밤길걷기 김희중 명예대회장(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OECD 국가 중 자살률 1, 2위를 이어가는 것은 존중과 배려의 부재, 생명경시 풍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대회를 통해 우리사회의 생명경시 풍조에 맞서서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정신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서 손인용 명예대회장(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대표)은 "우리가 서로 돕고 함께 사는 상호연대 의식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살은 우리사회의 가장 슬픈 저화상이며,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국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성희 이사장(한국생명의전화)은 대회사를 통해 "이 캠페인을 통해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빛이진 생명경시 풍조를 생명존중문화로 바꾸어 나가고, 삶의 위기 속에 지포자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갖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하자"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보살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고 제언했다.

성결교신학교 제12·13대 학장 이·취임

13대 윤맹석 박사 취임, 서순석 박사 이임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윤기순 목사) 산하 총회 성결교신학교제12대, 13대 학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9월 9일(월) 오전 총회본부 3층 강당에서 거행됐다. 이날 행사는 예배와 이취임식 순으로 순서가 진행됐다. 이강준 목사(교단총무, 교육실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김종상 장로(부총회장)의 기도, 이흥배 목사(이사)의 성경봉독, 서울서지방회 회원들의 찬양 후 윤기순 목사(총회장)가 '이성적인 지도자(행 11:2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심상훈 목사(이사)의 개식사로 시작된 2부 이취임식에서는 이임학장인 서순석 박사와 취임학장인 윤맹석 박사에게 대한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 이임사, 신임 학장 소개, 교무위원 소개 및 임명, 후원위원회 위원장 위촉, 각 기관들의 학교발전기금 기탁, 이상문



목사(이사장)와 김부열 목사(은급재단 이사장)의 격려사, 분정민 목사(부총회장)와 김석희 목사(신학교 동문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총회성결교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사상과 신비주의의 신앙사상을 배격하고 복음주의 신앙노선에 굳게 서서 성결교회 본래의 전

통적인 성경주의에 입각하여 중생, 성결, 신유 제법의 시종복음을 고조하며,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성서주의의 보수 신앙에 철저한 목회자와 교회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단 내 신학교 통합과정을 거쳐 1988년에 설립됐다.

교회발전연구소, 제1차 교회정치포럼 개최

바른 교회의 본질회복 사역에 주력키로



세계선교부흥협회 부설 교회발전연구소(소장 이능구 목사)이하 교발연)는 지난 9월 7일(금) 오전10시 30분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소재 성암교회(담임 노환상 목사)에서 제1차 교회정치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앞서 드려진 1부 경건예배는 예장(합동) 경기중부노회 노회장 김형훈 목사의 사회로 남서울노회 노회장 이광우 목사의 기도, 채연희 권사의 특별찬양, 록 8:1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이능구 목사의 설교, 성암교회

노환상 목사의 인사, 사무총장 김진영 목사의 광고, 분회 이사장 최동호 목사 축도로 마쳤다.

계속해 2부 교회정치포럼은 세션형 공동대표 최본우 목사의 사회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어디로 가고 있나' 주제로 송상윤 목사(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와 박노섭 목사(예정활동 총남노회장)가 강사로 나서 열린 주제발표를 했다.

한편, 교회발전연구소는 금년 6월 9일 오후3시 서울시 전호동 애경빌딩에서 교계 원로 및 목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선교부흥협의회 부설기관으로 공식 출범하고, 소장이 이능구 목사, 사무총장에 김진영 목사가 맡아 이끌어가고 있다.

예장합동중앙총회, 여름수련회 개최

전국노회 찬양경연대회도 가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총회(총회장 김영희 목사)는 지난 8월 20일(월) 오전 11시 강원도 홍천군 서면 예담숲에서 여름수련회 및 전국노회 찬양경연대회를 총회임원 노회장 및 여목회자 등 20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교단화합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련회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권필수 목사의 사회로 국내선교부장 김순자 목사의 기도, 농어촌선교부장 정정현 목사의 성경봉



독, 사회선교부장 이정애 목사의 특별찬양, 여목회자연합회 회장 김영숙 목사의 겔 37:16-23 말씀을 본문으로 한 '내 손에서 하 나가 되라'는 제목의 말씀선교, 제정 부서기 강경애 목사의 봉헌기도, 총회장 김영희 목사의 광고 및 인사말씀, 총무 이승진 목사의 진행으로 '성총회를 위하여', '신학교를 위하여', '전 총동문회장 정애순 목사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한 후, 부총회장 전병권 목사의 중식축복기도, 전총회장 서욱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계속해서 수련회는 여목회자 주관으로 1부 전국노회 찬양대회, 2부 성령충만수련회를 갖고 매달렸던 심령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큰 힘을 되찾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도 2학기 개강예배

부산신학교

부산신학교(학장 한명점 목사)는 지난 9월 6일(목) 오후 7시 2018년도 2학기 개강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지성과 성령충만의 훈련장이 되기를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교무처장 조은혜 목사의 사회로 김윤성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박종근 목사의 특별연주, 가나안농군학교 이현희 목사의 빌4:10-2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순유이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 학장 한명점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예배를 통해 참석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증거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였다.

중국 상해에서 3박 4일 하기 수양회

부산지방법

부산지방법(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9월 2일(주일) 밤 비행기로 중국 상해로 출발해 3박 4일간 하기 수양회를 가졌다.

첫날, 밤늦게 상해에 도착하여 숙소에 모여 마 16:28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종들'이라는 제목으로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남의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 이루기를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일제 압박의 위기에 처한 조국 대한민국을 위



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지도자들을 통해 독립을 이루고 나라를 굳건히 세웠던 선조들의 업적을 기리며, 지금 역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에 닮은꼴인 담대한, 다니엘 같이 신실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지도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민족과 나라가, 마지막 때에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키는 선교의 대국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남은 일정 내내 우리가 가는 곳곳, 우리가 밟는 그 땅마다 하나님의 나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좋은 여행을 하라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또 시작되는 가을에는 우리 모두의 사역위에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다짐하며 각 자사역지로 돌아갔다.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라

전북서지방법



전북서지방법(회장 박상규 목사)는 지난 9월 11일(화) 주바라기교회(담임 김종곤 목

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의 발전과 지방회 부흥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양희철 목사의 사회로 서기 김현배 목사의 기도, 고현진 목사의 록 15:31 말씀을 본문으로 한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라는 제목의 설교와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예배 후 이어진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의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주바라기교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애찬을 함께 나누었다.

이어 고군산열도(선유도와 장자도)를 관광하며 힘을 얻고, 복음의 사역을 넓혀갈 것을 각오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한국 성경 최초 전래지 찾아 사명 되새겨

대전지방법

대전지방법(회장 김병목 목사)는 지난 9월 6일(목) 전북 군산 앞바다의 새만금 방조제와 다리로 연결된 고군산도의 신시도, 선유도, 장자도로 이어진 섬들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방회 목회자들의 친교와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군산의 화식당에서 은혜와찬양교회의 이장혜 권사의 섬김으로 풍성하고 맛있는 점심식사를 마친 후에 금강하구둑을 지나, 장항의 송림 신책길과 바닷가 위를 지나는 스카이 워크를 걸으며 즐거운 교제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서천, 마량포구의 우리나라 성경 최초전래기념관에 들어서, 1816년 한국최초로 전해진 성경과 같은 해에 인쇄된 1611년(조판) 김제임성경과 우리글로 번역된 성경번전사를 둘러본 후에, 기념관장인 이병무 목사의 성경이 전래된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우리나라 선교역사는 세계 선교 역사에



유래가 없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아편첼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무려 70년 전)에 성경(영어)이 먼저 전해졌다.

그로부터 50년 후, 1868년에 미국상선 제너럴사만호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 말씀(성경)이 들어오고, 신자가 자생하고, 교회가 세워졌다.

조선을 향한 특별하신 하나님의 열망과 은혜였다.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1,000만의 신자와 세계전역에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성장한 선교대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보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섬김이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생명의 빛을 비추는 말씀을 전하고 기쁘게는 이 시대의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되새기며 나라와 민족, 교회와 사역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이어 교단 부총회장 엄기설 목사의 마무리 기도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자

경기남지방법

경기남지방법(회장 신동숙 목사)는 지난 9월 4일(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 14에 위치한 순복음복있는교회(담임 서

경오 목사)에서 월례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서성영 목사(복원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찬송 인도에 최정용 목사(민음교회), 대표기도에 표현자 목사(시냇가에심나루교회), 성경봉독에 김효신 목사(천양교회), 사모일동의

특송,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막 10:45 말씀을 본문으로 '섬기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섬김으로 본을 보여 주셨듯이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여 전파함으로 참여한 회원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이어 헌금기도에 한전희 목사(주본향교회), 지방회장 신동숙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는 지방회장 신동숙 목사의 진행으로 회무의 시간을 가졌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10월 야유회 간에 대해서 논의하고 광고 하였다. 끝으로 복있는교회에서 준비한 애찬을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여 풍성한 대접을 받음과 함께 서로 교제와 사랑을 나눔으로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충북지방법

충북지방법(회장 오병용 목사)는 지난 9월 10일(일) 오전 11시 중앙침교(담임 김윤배 목사)에서 9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민병훈 목사(예광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신현찬 목사(기쁨충만 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김윤배 목사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살전 2:4-9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의 목회'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였다. 바울은 사람의 눈치나 보고, 비유나 맞추는 목회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였다."라며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다"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가 되자"고 전했다.

김 목사는 또 "거짓 사역자와 양의 탈을 쓴 사역자들, 소명을 잃어버린 사역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지만, 바른 사역자는 무엇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손 벌리기보다는 오히려 나누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목회다. 우리가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목회를 하자"고 전했다.

이어 권숙자 목사(새생명교회)의 헌금기도와, 김윤용 목사(증평 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오병용 목사(이연순복음교회)의 진행으로 조재호 목사의 재무보고, 민병훈 목사의 회계보고, 교육위원회 보고, 고시위원회 보고, 김용 목사의 총무보고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 다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본 교단의 발전과 지방회 산하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한 후 김윤용 목사의 마무리 기도로 월례회를 마쳤다. 회의를 마치고 중앙 샘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모든 일정을 모두 마쳤다.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경기북지방법

경기북지방법(회장 탁정신 목사)는 지난 9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순복음참좋은교회(담임 오세준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이경진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탁정신 목사의 찬상 26:18 말씀을 본문으로 한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라는 제목의 설교, 서기 육준수 목사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탁정신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탁정신 목사의 진행으로 서기·재무 육준수 목사가 회원점명



후 총무·서기·재무 보고를 통해 목양실태 지방회 소식 자료와 임원회의 등에 관하여 보고했다.

이어 회계 오세준 목사의 회계보고 후 안건토의 시간을 갖고 강인덕 목사의 폐회기도로 월례회 모든 순서를 마쳤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 생명의 말씀 ■



정 부 응 목사

·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직전대표회장
· 교단 전직 부총회장
· 대림번역교회 당회장
· 평창대림벤엘수양관 원장

무언가 시작을 앞두면 새로운 목표와 결단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전도도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성경 속 인물들을 따라 그들의 믿음과 선한 행위를 닮고자 노력하거나 기도로 나아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한명을 뽑아야 한다면 바로 바나바를 택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적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타인적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기주의와 분리주의가 교회의 힘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과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바나바에 대해 알고 그의 믿음의 삶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나바의 인격과 온전한 신앙을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첫째 바나바는 위로의 착한 사람입니다 (행 4:36 11:24).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교회사역을 위해 자신의 발을 팔아 한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나 이따나 부동산처럼 확실한 재산이 없었나 봅니다. 바나바도 자기의 발을 팔아 하나님께 한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가난했으면서도 가난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요셉이었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36절). 이는 '격려의 아들' '위로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로 인하여 권고받고 위로받고 도움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없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더욱이 모세의 율법과 유전의 계율로 짓눌린 예루살렘의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과 위협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초대 교회의 상황 아래에서 바나바의 눈과

마음은 주를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착한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은 바나바 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진정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마 25:21) 하고 칭찬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증보지였습니다(행 9:27).

교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교회의 반응은 두려움과 불신이었습니다(행 11:26). 막힌 담이 두꺼웠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 박해를 일으킨 주동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행 8:1). 이러한 사울이 교회에 들어오니 제자들과 성도들이 두려움과 의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바나바는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과 사울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길에서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죽음의 위협을 부를 쓰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 전한 것을 말하였습니다(행 9:27). 결국 바나바의 중보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한 가족이 되었고, 예루살렘에 출몰하며 함께 살고 같이 교제하

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화목의 삶을 바나바는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이 있던 후에 성경은 "그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행 9:31)라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숨은 사역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평안해진 것입니다

셋째, 바나바는 성령충만한 사람입니다 (행 11:24).

행 11:24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하신 것으로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주를 믿는 신자의 기본적인 신앙 조건입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게 귀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므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므로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충만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오직 주의 일이 부흥되기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승리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했던 사람,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성령충만한 바나바였습니다.

넷째, 바나바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행 11:22, 13:2-4).

바나바는 교회가 보내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일어난 구원의 큰 역사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로 하여금 안디옥에 가라고 하였을 때 바나바는 순종하였습니다. 집과 친척과 교회와 성도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약 300마일 ~450km) 아마도 생소할지 모르는 곳에 보냄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교회에서 보내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방 나라의 문화와 종교적 전통에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한국교회가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바울보다는 바나바일지 모릅니다. 모두가 지도자만 되고자 하는 이 시대에서 바나바와 같이 순종으로 섬기는 자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 바나바가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넘어져 있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성도님 일어나야 합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도사님 힘을 내십시오"이 한마디를 통해서 바울 같은 일군을 만드는 바나바가 됩시다.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작심삼일로 끝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보이는 이웃, 교우,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짐으로 열매를 맺는 작은 실천자 바나바가 되어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 행사와 관련하여 대표적 모언론이 보도한 것에 대하여, 시민들이 댓글을 단 것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다.

"늘어나는 국가 부채와 세금 부담으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약값까지 국민 세금으로 내주어야 하는가"

"성소수자들의 축제이면서 장애를 가진 신분을 앞세워, 차 도로를 막게 하는 발상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퀴어축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수단체가 아니라 제정신인 사람들이다"

이제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동성애 퀴어 축제는 사라져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가혹이나 경제가 어렵고, 청년들은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힘들어하는데, 음란과 퇴폐와 동성애를 조장하는 저급한 퀴어행사는 자제되어야 한다.

동 정

김정훈 목사 GMS 신임 이사장에



예장 합동 총회 세계교회(이하 GMS) 이사회가 지난 9월 6일(목) 화성 월분리에 있는 GMS선교센터에서 제21회 정기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김정훈 목사(새누리교회)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 밖에 △부이사장 이성화 목사(서문교회), 안대식 목사(전주성남교회), 하재삼 목사(감제영광교회) 등이 선출되었다.

김형래 목사, 이현교회 담임



김형래 목사가 미국 감리교의 스크랜튼 선교사에 의해 지난 1888년 설립된 아현교회를 제38대 담임으로 지난 1일 부임했다. 김형래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신학사)와 동 대학원(신학석사)을 졸업하고 드류대학교(Drew University)에서 목회학 석사(M.Div.)와 박사(Ph.D)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예감 25차 감독에 조경행 목사



성경적인 감리교의 길을 오롯이 걸어온 (사)예수교대한감리회 제25차 정기총회가 지난 9월 13일(목) 서울시 용산구 한강중앙교회에서 개최됐다. '믿음으로 바라고 행하는 총회' (히 11:1)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젊은 리더십 조경행 목사를 선출함으로써 진취적이고 도약하는 교단이 될 것이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반정웅 목사, 합동예총 총회장에



한국교회 보수신학의 정통성을 온전히 이어가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예총이 지난 9월 11일(화) 경기도 부천시 고감동 좋은우리교회(담임 반정웅 목사)에서 제103회 총회를 열고, 지난 30년 동안 교단 총무로 헌신한 반정웅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하며, 교단 발전 및 부흥의 큰 단초를 마련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기독교 복음의 전래지 인천에서 동성애 퀴어축제 시도

지난 9월 8일(토) 인천에서는 제1회 동성애 퀴어축제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 행사는 열리기 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퀴어조직위)는 해당 행정구역인 인천 동구청에 집회 허가를 요청했으나, 구청에서는 장소의 협소함과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주차장 확보와 안전요원 배치를 요구했으나, 퀴어조직위는 이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자, 경찰에 집회신고를 함으로, 행사를 강행한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퇴폐·음란·선정적인 행사를 위하여, 인천 시민들의 불편은 인종에도 없었던 모양이다. 결과적으로 불법적

인 행사로 시작된 동성애 축제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시민들, 그리고 기독교계의 반대로 심한 혼란과 동성애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그치고, 행사는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는 현직 목회자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수감되어 채워진 채, 경찰에 연행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불법적인 집회를 강행하는 동성애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호한 채, 양심과 도덕과 윤리의 정신에 따라 반대하는 목회자를 현장에서 수감을 채워 체포하는 경찰은 도대체 어느 나라 경찰인가?

이는 공권력(公權力)이 아니라, 공포의

권력을 가진 공권력(公權力) 아닌가?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사과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은 물러나야 하며, 현지 경찰 책임자는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소수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구 사회나 이슬람국가에서처럼 동성애자들에게 불평등이나 억울하게 대한 일이 없다. 이는 자신들이 약자를 가장(假裝)하여,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는 획책이며, 자신들의 더 큰 권리와 권력을 얻기 위한 행태이다.

또 근처에 현 정권 들어서면서, 국가에

서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속에 동성애·동성혼과 차별금지법 등을 담아내려는 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대통령이 고위직에 오르려는 장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을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인사들로 채우면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본다. 물론 동성애 퀴어축제가 서울에서 시작되기는 수년 전이지만, 유독 현 정부 들어서면서, 제주, 전주, 부산, 인천 등에서 새롭게 동성애 축제가 늘어나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행사가 무산되었다고 하지만, 동성애자들은 실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싸움(?)을 하면서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견뎌내라 (딤후 2:3)

훌륭한군사 7th

대상 | 19세 이상 청년
장소 | 괴산순복음교회
일시 | 2018.9.23~26
회비 | 무료
(거져받았으니 거져주라)

문의 | 010-5145-3816

엔학고레 미니스트리

귀한 헌신으로 시골마을 교회가 세워지도록...

전남 무안군 해제면 순복음은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름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닥에 물이 차올라 성전 재건 축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전남 무안갯벌에서 염전을 하는 안수집사님께서 건축재정을 위해 '무안 천일염'으로 헌신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무안 천일염'의 판매수익금을 새 성전 건축에 보태어 만민이 예배하는 성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성전 건축에는 아직도 많은 도움과 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귀한 헌신으로 시골마을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기도와 함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만풍염전에서 생산한 100% 무안갯벌 천일염으로 각종 미네랄과 유기물이 풍부한 친환경 갯벌염입니다. 갯벌염전은 청정해역의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햇빛과 바람에 의해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품질이 매우 우수하며 안전합니다.



구 입 문 의 **010-8060-1141**
계좌 농협 628-02-097358 예금주 왕상엽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말이 되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4번의 판결처럼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절제되지 못한 부도덕한 성적욕망이다.

동반연(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바른국민권 연구소는 지난 9월 11일(화) 국회정론관에서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강력히 주장해온 ‘진선미 의원의 여성가족부장관 지명을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선미 의원은 동성애가 유전이거나 선천적이라는 주장이 모두 허구였음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문 기고(이성애자에게 고향)를 통해 ‘동성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선천적이다)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동성애가 마치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면서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의 수정을 주장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보낸 질의서를 통해 양성평등보다는 다양한 성정체성을 포함하는 성평등을,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등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9월에는 남녀의 성별을 구분할 수 없게 하고 다양한 성정체성을 포함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개정을 발의하였다.

또한 진선미 의원은 2012년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 간담회를 군인권센터(임태훈소장)와 공동 개최, 2013년 서울 LGBT영화제 집행위원, 김조광수 김승환의 동성결혼에 참석하여 축하하고 홍대 거리 퀴어축제에 참석하는 등 동성애 옹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두 명에게 부부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주도하였다. 생활동반자법은 이미 서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기반으로 한 혼인제도를 깨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 단계의 법안이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매우 적합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는 심각한 저출산을 극복하는 일이다. 건강한 사회는 자녀출산이 가능한 건강한 가정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특히 군대내 동성애 처벌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동성결혼 합법화의 기초가 되는 생활동반자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매우 부적합한 진선미 지명자는 자신 사퇴하기를 강력히 권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이야기한 군대내 동성애 허용에 반대한다는 이야기에 진정성이 있다면, 진선미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군대내 동성애 처벌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 온 진선미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 남성중심의 군대 상황을 고려하여 군대내 동성애 허용에 반대한다고 하였지만, 군대내 동성애 처벌법(군형법 92조36) 폐지를 강

력히 주장해온 진선미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동성애는 반대한다고 이야기해 왔지만, 동성애를 옹호하는 여성단체 책임자인 정현백을 여성가족부장관에 임명하였으며, 동성애를 옹호하고, 군대내 동성애 처벌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 온 진선미의원을 후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의를 매우 의심스럽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내 동성애 처벌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온 진선미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진선미 의원은 2014년 군대내 동성애 처벌법(군형법 92조36) 폐지를 대표 발의하였으나, 강력한 국민적 반대 에 부딪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2017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같은 법안을 발의하고자 하였으나 공동 발의자 10명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때에도 진선미 의원은 역시 적극 참여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군인권 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병역거부로 재판장에 섰을때 변론을 맡기도 했다. 진선미 의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군인권센터의 감사를 지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운영위원을 역임하였으며, 군인권센터와 공동으로 2012년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 2013년에는 서울 LGBT 영화제 집행위원을 지냈으며, 김조광수 김승환의 동성결혼에 참석하여 축하하였으며, 홍대 거리 퀴어축제에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동성애에 관한 잘못된 팩트에 그 인식이 기반하고 있다. 동성애가 유전이거나 선천적이라는 주장이 모두 허구였음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문 기고(이성애자에게 고향)를 통해 진선미 의원은 ‘동성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선천적이다)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4번의 판결처럼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절제되지 못한 부도덕한 성적욕망이다.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가 보호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은 동성애가 마치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면서,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의 수정을 주장하였다. 실제 그 이후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이 동성애가 마치 선천적이거나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진선미 의원은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보낸 질의서를 통해 양성평등보다는 다양한 성정체성을 포함하는 성평등을,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등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1월에 동성애옹호단체들과 함께 ‘주민등록번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라는 세미나를 개최한 후에 그해9월에는 남녀의 성별을 구분할 수 없게 하고 다양한 성정체성을 포함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개정을 발의하였다.

올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초로 1.0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어 국가의 존망이 심각히 염려될

정도이다. 전쟁중인 국가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1.0이하인 경우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심각한 저출산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독신인 사립을, 또는 혼인신고없이 오랜 기간 동거하던 사립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남편과 19년 가까이 혼인신고없이 동거상태로 지내다가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혼인신고를 하였다. 호주제 폐지운동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2005년 호주제 위헌결정후에도 10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진선미 의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에게 부부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을 주장하였다. 생활동반자법은 이미 서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기반으로 한 혼인제도를 깨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 단계의 법안이다. 이것은 진선미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매우 적합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6년 지역구의 한 대학교에 등록하였으나, 진선미 의원의 그동안의 활동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행동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한 등록이 아니냐고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본제를 제기한 목사 등을 고소하였지만, 무혐의 처리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 진선미 의원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종교기관 사회복지단체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이는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단체의 종교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는 심각한 저출산을 극복하는 일이다. 건강한 사회는 자녀출산이 가능한 건강한 가정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 얼마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에이즈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은 동성간 양성간 성접촉(92.9%)이라고 한다. 남성중심의 군대내에서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군대가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모들을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하게 될 것이다.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특히 군대내 동성애 처벌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동성결혼 합법화의 기초가 되는 생활동반자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합한 진선미 지명자는 자신 사퇴하기를 강력히 권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이야기한 군대내 동성애 허용에 반대한다는 이야기에 진정성이 있다면, 진선미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2018. 9. 11.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300개 단체 연합)
바른국민권연구소

“정부가 국민을 속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아야”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 특별기자회견

‘국민기만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국민비)는 지난 9월 7일(금) 오전 10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권정책기본계획(NAP)은 윤리도덕을 파괴하고 수많은 독소조항들을 대통령 훈령으로 강행하는 그릇된 인권정책”이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독재적 인권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결코 받지 못한다. 국민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말라. 거짓을 반드시 드러나서 그 대가를 치른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국민기만인권정책비상대책위원회’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 대한민국수호헌정국민모임, 자유와인권연구소 등 한국교계와 사회 500여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비대위를 구성하고 NAP 동성애 성평등정책, 차별금지법 삭제 개정 등을 위해 공동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국민비는 “국가의 정책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인권정책은 그 과정과 내용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이들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과 양성평등기본법을 무시하고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위헌이며 위법”이라고 지목했다.

또한 “정부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다는 거짓말을 사용하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성평등 정책을 밀어 붙이려고 한다. 성평등 정책은 윤리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작년에 개한안 발의를 통해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넣겠다고 할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니, 이번에는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성평등 정책을 밀어붙이고 결국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우리는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인권정책을 밀어 붙이려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정책 확산,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변경 등 여러 독소조항들이 인권정책에서 삭제될 때까지 순교적 각오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지연 약사(처화학 상임대표)의 인도로 김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가 기꺼인 NAP 문제점과 국민비 출범과 역할, 구자우 목사(고신 사무총장)가 ‘한국 기독교계의 입장과 대응’, 박요셉 목사(한기총 공공정책위원장)가 ‘정부와 국회, 지자체에 대한 대응과 요청’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원평 교수는 “NAP은 인권정책에 대한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 정부 26개 부처에서 272개 과제를 추진한다. 대부분의 과제는 이미 추진

을 시작했다. 앞으로 모든 부처가 이런 식으로 가기에 범국민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길 교수는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을 말하지만 성평등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다양한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말한다. 국민의 합의를 얻어서 진행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정부는 거짓말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정부는 성평등이 양성평등을 줄인 말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요셉 목사는 “저들은 그동안 성평등과 차별금지법 등 입법을 시도했으나 국민들의 반발로 다 막히다 보니 이제는 대통령 훈령으로 각 지자체까지 국가기권정책기본계획을 하달했다. TV에는 벌써부터 성평등 광고가 나오고, 지자체마다 인권조례가 없는 곳은 만들 것을 촉구하며,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이루내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며 “이들은 헌법 위에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거의 헌법기관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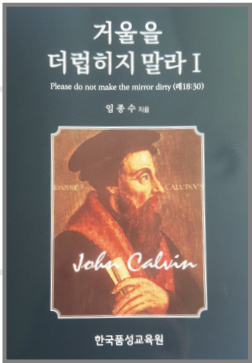
특히 박 목사는 “제일 위헌한 법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면서 “여기에는 반드시 차별조항들이 따라온다. 종교의 존엄이 위태로워지고, 신학교 강의와 교회에서의 설교가 제약받으며, 종교를 박해하는데 이용되는 악법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를 전했다.

국민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기권정책기본계획 독소조항 반대 10대 실천계획’을 공개하고 성평등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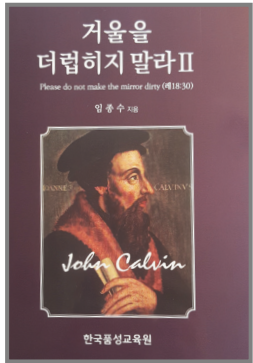
그 내용은 △인권정책(NAP) 문제점을 알리는 설교, 기도, 강연 등을 하거나 이웃에게 말하기 △인권정책(NAP) 독소조항 삭제 개정 현수막을 건물 외벽과 주위에 걸기 △인권정책(NAP) 독소조항 삭제 개정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기 △청와대, 국무총리실, 법무부, 여가부 등에 항의 전화하기 △지역별 인권정책(NAP) 독소조항 삭제 개정 대규모 집회 개최 또는 동참하기 △인권정책(NAP) 문제점 알리는 전단지 등을 거리에서, 또는 이웃에 전달하며 설명하기 △인권정책(NAP) 문제점 알리는 기사, 영상, 카툰, 카카오톡, 페이스북에 올리고 댓글 달고, 전파하기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들에게 NAP 독소조항 삭제 개정 요청하기 △인권정책(NAP) 독소조항 반대 스티커, 포스터를 게시판, 자동차 등에 부착하기 △인권정책(NAP) 반대 단체에 후원 또는 자원봉사하기 등이다.

한편 국민위에는 기독교를 비롯한 불교와 천주교 등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언론인단체, 법조인단체 등 전국적으로 50여 단체가 대거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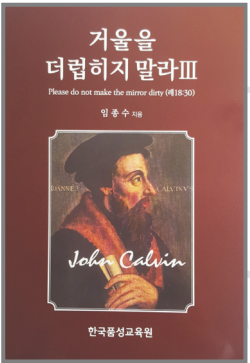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분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하고 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9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8. 8. 31(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8. 9. 06(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8. 9. 20(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8. 8. 31(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19. 2. 11(월)~12(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임웅재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신재영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결혼114 全國支社 및 會員 모집

저희 결혼114는 하나님께 이 사업의 방향을 두고 기도하던 중 미혼 남,여 청년들의 결혼이 교회마다 심각한 점과 개척교회 재정에도 보탬이 되는것이 국내 선교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감동을 받고 전국에서 고생하시며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신학생을 지사장님으로 모시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 지사장 자격

- 목사님, 전도사님, 신학생, 사모님 ● 장로님, 집사님 ● 믿음의 형제, 자매

□ 혜택

등록비 54만원(부가세별도) : 고객들이 부담없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의 이상형을 직접 찾아서 만나고 교제하고 결혼할 수 있음

- 남녀 매칭 문제 본사에서 전담 - 지사에서는 회원 등록만 전담
- 각 지역별 독점권 부여
- 지사 블로그 제작 지원
- 결혼 미팅파티 행사 지원
- 전국 기독교인 회원 보유
- 본사 새로운 사업에 우선 참여 기회 제공

※ 특전 : 본사에서 전국 각 지사로 매달 공유 수당 지급

□ 지사 모집 지역

서울시	성동구, 용산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시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대구시	지사 계약 완료
인천시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시	서구, 남동구, 북구, 광산구
대전시	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
울산시	중동구, 남구, 북구
세종시	세종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수원시 팔달구+영통구,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성남시 분당구(상당진행중), 남양주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군포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용인시, 이천시, 김포시(상당진행중), 광주시
강원도	춘천시, 강릉시(상당진행중), 원주시
충 북	충주시, 청주시
충 남	천안시, 아산시, 보령시, 서산시, 공주시(상당진행중)
전 남	목포시(상당진행중), 광양시(상당진행중), 순천시
전 북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경 북	구미시, 포항시, 경주시, 영주시, 안동시, 경산시
경 남	진주시, 양산시(상당진행중), 김해시(지사계약완료),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창군
제주시	제주시

☎ 상담전화(전국) 1566-5049

□ 홈페이지: WWW.결혼114.COM

□ 신고번호: 대구-중구-국내-2015-0006호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내역 총괄전문의 <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제2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리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http://agpgs.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제2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자격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표준 화석은 순환논리에 따른 허구적 추론

(사)교진추, 6일(목) 교육부 등에 교과서 개정 청원

(사)교과서전화론개정추진회(사)교진추·회장 이광원)는 '표준 화석'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고등학교 『통합과학』 및 『지구과학 I·II』 교과서가 잘못 뒀다며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6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표준 화석은 과학적 사실이 아닌 순환논리에 따른 허구적 추론이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서에는 전·현직 대학교수 등 과학 관련 교육자들로 구성된 청원 위원회의 의견이 담겼다.

(사)교진추는 "저신뢰 과학(low-confidence science)의 영역에 속할 뿐 아니라, 실험과학에서 금기시행인 '순환논리'의 한계성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표준 화석' 등에 대해 교과서에서 마치 실험과 학적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가치관 및 과학적 사고력 함양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개정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교과서의 '표준 화석'에 대한 내용은 지나치게 단편적 및 단정적으로 기술돼 있어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오개념(誤概念)을 주입할 여지가 매우 많다고 했다.

실제로 "이상적인 표준 화석은 하나도 없으며, 화석 표본수집 및 화석 분류 등의 한계성과 문제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화석 표본수집은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범위는 언제든지 새로운 발견으로 바뀔 수 있으며, 실제로 층서학적인 범위가 바뀐 화석의 예들도 많다. 화석생물체의 최초나 최후의 출현에 대해 이전의 기록이 잘못됐거나 층서학적인 범위가 확장돼서 수정한 것이 1500개 이상임도 보고됐다(Sepkoski, 1993)고 밝혔다.

이율러 "표준 화석은 자연주의적 철학에 따른 지질 시대의 시간적 배열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나 '목'을 뛰어넘는 변화로서의 진화론적 순서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오개념을 심어주도록 교과서에 기술돼 있다"고 했다.

(사)교진추는 소위 '공룡의 시대' (쥬라シック한 용어)로 선전되고 있는 '중생대'라는 지질 시대의 대표

적인 표준 화석으로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마치 실험과학적 사실처럼 알려져 있는 '공룡'에 대해 '공룡'을 연구하는 많은 고생물학자들이 골격의 특징을 근거로 조류도 공룡(avian dinosaur)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엔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고, 오늘날에도 살아 있는 것(Dingus & Rowe 1998)으로 보기도 한다고 했다.

앞으로 이 땅의 미래를 펼쳐나갈 학생들에게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과학적 해석의 전수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 함양 및 과학적인 도전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교과서가 바르게 서술돼야 할 것이다.

(사)교진추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에도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보낼 예정이다.

아동문학가 김철수 장로 칠순기념 129번째 저서출판기념식

제⑤힐링 칼럼 집 《오메, 징한거!》

아동문학가 김철수 장로(70)칠순 기념 제129번째 저서인 힐링 칼럼 집 《오메, 징한거!》출판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저자인 김철수 박사의 70회 생일기념으로 출간되었는데 제1부는 고복록 전 목포문인협회 회장의 사회로 美 올리벳산학교 총장 윤사무엘 박사의 축복기도와 美 글로벌게이트대학교 엄문용 총장의 시평이 이어졌다.

특별순서로 시인이며 작곡가인 조정민 씨의 축하기념 연주와 참석자들에 대한 저자의 펜 사인회와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저자인 김철수 박사는 전남 함평출생으로 지난 1981년 월간《기독교문학》지에서 공모한 제7회 기독교아동문학상에 동시 《새벽종소리》로 입선하여 문단에 데뷔하여 1983년 《한국시학》신인상시 부문에 작품《신접살림》이 당선되고 1984년 4월 (사)한국문인협회 기관지인 《월간문학》신인작품상에 장작동화 《꾸러기장군》이 동화부문에 당선 본격적인 아동문학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김 장로는 등단 후 지금까지 129권의 저서를 출간하여 광주·전남지역의 아동문학의 선두주자로 전국 유수문학지와 서울신문, 신동아 등에 작품을 발표 전남아



동문학상, 전남문학상, 한국아동문학작가상, 한국기독교문학상, 한국글사랑문학상, 김영일 아동문학상, 천동 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하고 그의 작품 《우산정수 할아버지》는 교육부 발행 중학교 국어교과서 1-1학기에 수록되기도 했다. 금번 출간된 힐링 칼럼 집 《오메, 징한거!》는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사막한 현대생활 속에서 상실된 인간성을 되찾자는 간절한 바람과 주장을 담고 있다.

CTS JOY어린이영어합창단 전국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세상에 빛이 되는 아이 양육이 목적

교회별로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전도프로 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출석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 CTS기독교TV가 다음 세대 전도를 위해 아심차게 기획한 CTS JOY어린이영어합창단이 각 지역을 대표하여 합창단을 운영할 운영 교회의 담임목사와 지휘자들을 초대하여 합창단 운영자 교육 및 합창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여 새로운 어린이 전도의 도구로 교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27일(월) 오전 10시 CTS 멀티미디어센터 지하 1층 CTS라디오JOY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인

천내리감리교회, 부산기장장로교회, 위례주아선교교회, 송파선한목자교회, 안양성도침례교회, 안성중앙교회, 구미새삼침례교회 등 7개의 교회가 어린이 전도라는 동일한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였다.

이 모임을 기획한 담당 이사는 'CTS JOY 어린이영어합창단은 성경공부, 영어공부, 신나는 음악과 댄스를 접목한 어린이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과 믿음으로 훈육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귀한 전도 도구로 쓰임 받길 원한다고 합창단 창단의 의를 참석자들에게 전했다.



제 5회 서울시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

장기기증 그림책 '두근두근 심장이의 비밀' 출간 기념회 가져

지난 9월 5일, 서울시가 주최하고,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주관하는 2018년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이 진행됐다. 이번 기념식은 청계광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진행됐고, 서울시 및 본부 관계자가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장기기증의 날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기념식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뇌사 장기기증인 유기족 및 심장이식인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와 그 자녀들, 장기기증 홍보대사 방승인 현영, 에바 씨 등이 참석해 생명나눔의 나무 제막식과 함께 장기기증 그림책 '두근두근 심장이의 비밀' 낭독회를 가졌다.

우리나라 장기기증 등록 연령 만 19세, 장기기증 활성화에 걸림돌

특별히 2018 장기기증의 날에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서명운동과 함께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보다 넓히고자 그림책 출간 기념회를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만 19세가 돼야 자신의 의사만으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가능해 해당 제도가 장기기증 활성화를 방해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미국은 만 13세, 일본은 15세, 호주는 16세부터 본인의 의사만으로 장기기증 등록이 가능한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연령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 장기이식 과정 쉽게 알 수 있는 그림책



책 '두근두근 심장이의비밀' 제작

이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의 등록 연령을 낮추자는 캠페인과 함께 어린 나이에서부터 장기기증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그림책을 제작하게 됐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박현진 씨의 재능기부로 제작된 그림책 '두근두근 심장이의 비밀'은 심장이 기증인의 몸에서 이식인의 몸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여행처럼 그려며 아이들에게 장기이식의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있다. 작가 박현진 씨는 "미국 드라마를 보면 중 장기기증에 대한 에피소드를 접하고, 우리나라에는 장기기증에 대해 쉽

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으며 "이에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장기기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어 그림책을 제작하게 됐다"고 제작 소감을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되는 장기기증 교육 그림책을 알리기 위해 홍보대사 현영 및 에바 씨도 자녀들과 함께했다. 미취학 아동의 부모인 두 홍보대사는 이번 행사에서 동화책을 아이들에게 낭독해주며 장기기증이 얼마나 소중한 아름다운 일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 3 회 자유대한지킴이선교축제

설립 11 주년기념 / 여전도회관 2층 김마리아성전 9월 28일 오후 1 시

한국선교세계연맹

Korea Mission World Federation

바른음주문화중앙협의회 · 태권도리더세계선교연맹 · 미라나타올리위십선교회

Vision 2030 Leader in the 4.4 Vision

1. 국가정책 방향 초석다짐
2. 한민족 문화도양 복음화
3. 정의로운 공직질서 확립
4. 복음으로 언론의 공의 세움

창립대표회장
강 동 규 목사

설립위원장 3 분 연맹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고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을 국제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에 사회전반에 걸쳐(정치, 문화, 사회, 교육, 경제, 언론, 종교, 체육, 등) 복음으로 다져진 애국애족의 건널목으로 복음중을 쇄소화하는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조속히 이루고 나아가서 신정통치로 열국 가운데 본이 되는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설립 취지를 둔다

한국선교세계연맹 고문 및 임원진

 고 문 전 용 만	 고 문 김 중 석	 고 문 황 준 석	 상임대표회장 강 봉 규	 상임회장 장 중 수	 운영회장 박 영 일	 영성위원장 전 한 배
 상담위원장 한 효 숙	 출판인사위원장 홍 기 덕	 이단대책위원장 이 영 선	 연예위원장 이 경 혜	 총창단 단장 조 명 히	 사무국장 임 광 규	 재정기획장 임 봉 준

K M W F KOREA MISSION WORLD FEDERATION

한국선교세계연맹

정기월례예배 & 실행위원회

장소: 여전도회관 2층 김마리아성전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1시

(우) 10904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405(동패동291-1)2층
☎ 031-947-7461 Fax 031-948-7461
E-Mail patos911@naver.com

한국선교세계연맹 / 바른음주문화중앙협의회 · 태권도리더세계선교연맹 · 미라나타올리위십선교회

한가위 맞아 CTS TV 특별 편성

민중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섬김과 나눔의 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며 은혜와 감동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인방극장을 찾는다.

■ **가족들과 남녀노소 둘러앉아 재미와 감동을 나누는 프로그램**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는 명절을 맞아 한가위 첫날인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한민족 디아스포라 특집을 진행한다. 이탈리아, 독일, 중국, 고려인, 탈북민 대표 디아스포라들을 만나 그들이 타향살이 중 겪은 고난 가운데 부여하신 주님의 은혜를 듣는 시간을 가진다. 26일 수요일에는 특별히 대회 중 '통일콘서트' 실황을 함께한다. 북한최고악단장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정요한 집사, 탈북 스포츠노 명성희 집사, 북한과 남한 악기의 합주 등 여러 아름다운 소리를 선보인다.

(본방송 : 9월 24~26일(월~수) 오전 9시 20분)
찬양을 통해 풍성한 감동을 선사해온 CTS <내 영혼의 찬양 Praise>는 한가위를 맞아 특별한 찬양을 선사한다. 손해석 목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특화된 찬송,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이하늬 씨 가족의 조화로운 국악 찬양 등 <내영혼의 찬양 Praise> 한가위 특집은 시청자들에게 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볼거리와 들을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본방송 : 9월 24~26일(월~수) 낮 12시)
눈물이 담긴 교회 성도들의 간증들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행진>이 한가위를 맞아 아주 특별한 교회를 방문했다. 경춘선이 신설되며 폐역으로 방치되었던 구, 금곡역. 정겨움이 가득한 역사에 들어선 성서교회는 온 마을이 따뜻하게 될 수 있는 사랑방이 되고 있다. 다음세대를 섬기고 다문화 결혼식을 진행하는 등 공간을 통한 문화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성서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 (본방송 : 9월 24일 (월) 오후 3시 40분)

■ **생생한 감동, 생생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CTS 특집다큐 및 영화**

CTS 특집다큐 <성경은 역사다>가 명절 당일인 월요일 저녁 7시 30분 특집 방송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땅, 이스라엘 성지 현장에 있는 유물과 유적의 고고학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를 심도 깊게 살펴 낸 다큐 <성경은 역사다>는 성지문화원 원장인 박용우 교수가 참여해 이스라엘 유물과 유적에 대해 진정한 해설을 곁들이고, 기존에 답을 수 없었던 성지 현지 고고학자와 석학의 견해도 함께 담아낸다.

또다른 CTS 특집다큐 <성경의 땅, 요르단>은 화요일 같은 시간 방송된다. 성지가 100곳 이상 되는 방대한 성경의 땅 요르단, 우리가 잘 몰랐던 땅 요르단에 숨겨진 신비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조망한다. 성경의 세계관을 담은 역사적인 땅 요르단, 특집 다큐멘터리 <성경의 땅, 요르단>을 CTS에서 만나볼 수 있다.

(본방송 : 9월 24~25일(월~화) 저녁 7시 30분)

체조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 꿈멘토로

월드비전 꿈멘토 위촉... 꿈을 주체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지원 다짐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지난 9월 8일(토)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체조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따낸 양학선 선수를 '꿈꾸는 아이들 꿈멘토'로 위촉했다.

'꿈꾸는 아이들 꿈멘토'는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들' 사업의 일환으로, 직업별 전문가를 꿈멘토로 위촉해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어렸을 때 여윌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양학선 선수는 월드비전으로부터 10년 동안 후원받아 금메달리스트의 꿈을 이룬 경험이 있어 이번 '꿈꾸는 아이들 꿈멘토'를 수락하게 됐다.

8일(토)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꿈꾸는 아이들 꿈멘토 위촉식에는 양학선 선수를 비롯해 김순이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장, 정병원 무진종합사회복지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촉식 이후에는 웹툰작가,



프로그래머 등 8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로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꿈꾸는 아이들 꿈멘토로 위촉된 양학선 선수는 8일 전남대학교에서 진행된 '꿈꾸는 아카데미' 드림스

토리의 패넌로 참여해, 청소년 200명에게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열정에 관해 이야기했다.

양학선 선수는 "저도 월드비전 후원을 받아 체조 선수라는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만큼, 제가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이들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곁에서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꿈꾸는 아이들 꿈멘토인 양학선 선수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주체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월드비전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꿈꾸는 아이들 꿈멘토로 위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들'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꿈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통합 프로그램과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구세군 희망나눔미, 나눔모바일과 함께

한국구세군(사령관 김필수)은 나눔모바일 측에서 구세군 희망나눔미에 3천 4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나눔모바일대표이사 양기학)은 국내외 최초로 IT와 접목시킨 사회 공동체 플랫폼을 사업으로 인정받아 2013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선정된 회사이다. 특히, 나눔모바일 플랫폼은 국내 최초로 스마트 지역화폐를 기획해 2015년부터 의정부시 지역화폐 운영사업자로 선정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플랫폼의 특징으로는 참여기업 및 상인과 공동마케팅을 추진해 소비자에 편의와 이익을 제공하고 수익의 일부를 사회공헌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참여기업의 공유가치창출 및 이익 분배로 지역의 사회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위의 목적을 함께 하고자 구세군 희망나눔미에 물품을 기부했고, 구세군 또한 그 나눔에 감사하고 있다. 구세군 희망나눔미는 기업 및 개인이 기증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재할음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판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은 이웃성금과 노숙자 재활사업, 일교을, 약물 중독인들에게 재활 및 자활 치료,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구세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의 지원금



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세군 희망나눔미 측은 "구세군 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에 동참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 많아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눔모바일 관계자는 "좋은 마음으로 물품을 기부했는데 제품 판매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겠다"고 말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가기

오직 성경말씀으로 하는 능력전도!

어느 교회에서 가족세트전도 콘퍼런스가 있었다. 화장인 박영수 목사가 능력전도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초청을 받아 갔다. 참석해서 전도코칭 예배를 드리고 연이어 현장전도에 나섰다.

강사 박영수 목사를 바짝 따라가 지켜보았는데 이제껏 많은 방법의 전도를 해보았지만 이런 전도 방법은 처음이었다.

길 가는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받으세요!"하고 기도도 축복하면서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요 1:12). 제가 1분 동안 축복기도 하니 따라 하세요!"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하고 영접기도를 따라 한다.

이어 영접기도를 받은 사람은 본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술술 알려준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신상을 알려 주는거?

먹을 것 생활용품 등을 갖다 주고 공들여도 안 알려

주는데 어찌 알려주는지, 충격! 그 지체였다.

현장전도에서 은혜와 도전을 받고 가족세트전도 훈련을 받기로 굳은 결심으로 등록했다. 부족하지만 이번 기수세트전도 회장 일을 맡게 되었다. 매주 수요일 찬송과 기도로 준비하고 평내호평복지회 버스정류소 상가 주택 평내호평역광장에서 현장전도실습을 한다.

말씀의 무기를 선포하니 심령이 사로잡히며 공중권세 잡은 아드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엡 2:10)는 말씀처럼 말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비된 영혼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이다. 불의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데 그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의 도구 되길 원한다.

사온성교회 가족세트전도아카데미 154기 회장 송영남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o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회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옹호 활동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개척교회(힘드신 교회)에 전도용으로 보내드립니다. 간수 잘 빠진 천일염 20,000원에 판매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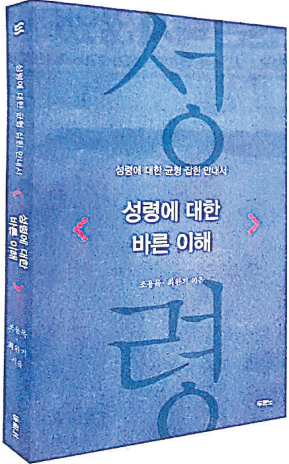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 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번져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 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임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자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하나님의교회 실행위원이다.
자 **최완기 목사**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교단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부흥사회 회장	부흥사회 상임총무
					
조용목 목사 정백원교회	임용재 목사 총회장	김인찬 목사 증경총회장	정부용 목사 대림병원교회	신재영 목사 새김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하나님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18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선총회장	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증경회장	증경회장	회장	상임위원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용 목사 (성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교회)	진동용 목사 (세소영교회)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달 목사 (진주은혜와진리교회)	최광덕 목사 (일신은혜교회)	이창재 목사 (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조남영 목사 (가평순복음교회)	김양인 목사 (북양제일교회)	임용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김인찬 목사 (청신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병원교회)	엄기철 목사 (은혜와진영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신재영 목사 (새김교회)	임영광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사무국장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오승욱 목사 (천안서복교회)	황은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병목 목사 (금신순복음교회)	정석현 목사 (영강교회)	백영자 목사 (북동순복음교회)	신동수 목사 (순복음임피누영교회)	서정복 목사 (삼천중앙교회)	김기진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최경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하나님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인교회)	김배을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조선남 목사 (대림병원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행복교회)	박홍열 목사 (오성사랑교회)	성기찬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침례교회)
서기	재무	회계	감사	감사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덴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교회)	양은혜 목사 (경조교회)	김종연 목사 (은혜교회)	최남성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은영교회)	권택선 목사 (순복음아문교회)	김연옥 목사 (행복한신교회)	이화숙 목사 (전주순복음우리교회)	임영철 목사 (순복음송리교회)	홍현자 목사 (시랑과평화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정광무 목사 (순복음빛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열방교회)	서법석 목사 (가니안영성교회)	옥보에 전도사 (소망농교회)	정예서 목사 (혜수향기교회)	김남수 목사 (밝은빛교회)

회원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초점

종교문제대책전략연구소

동방번개 정체와 대응전략 공개

중국에서 넘어온 동방번개(전능신교)로 인한 한국교회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에서 발표한 동방번개(전능신교) 자료들이 오류가 많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9월 11일 종교문제대책전략연구소(소장 심우영 목사)가 롯데시티호텔(구로점)에서 개최한 '동방번개(전능신교) 정체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동방번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온 미 아시아 리서치 연구센터 하지진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동방번개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전제한 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동방번개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국 가정교회를 넘어 이미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등에 파고 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 원장은 또 "타 사교 집단에 비해 동방번개에 대한 연구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하 원장은 특히 "한국교회에서 발간된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중국에서 흘러들어온 것이 전부"라면서 "구체적인 연구도 없이 자료 대부분이 인용 정도의 수준으로 이로 인해 잘못된 오류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 원장은 "동방번개가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이란 책자는 전능신교가 필요로 한 내용들을 무작위로 인용해 마치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내포하고 있으나 실상은 무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이로 인해 인용된 관계자들과 교회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하 원장은 이와 함께 "단적인 예로 전능신교는 위트니스 리와 위치만 니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반대로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일부 관계자들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나 연구 없이 관계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연구결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이어 "한국교회 관계자가 발행한 책자에 'Understanding False Religion' 55-56쪽에 인용을 통해 '위트니스 리는 1978년 중국에 들어와서 호암파를 세웠다'고 주장했지만, 조사결과 'Understanding False Religion' 55-56쪽에 이런 글이 없다"면서 "위트니스 리는 1949년 이후로 중국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동방번개는 기독교 이름을 도용하지만, 성경을 무시하고 부정하며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이란 책을 성경으로 대체하고 있다.

전능신교는 교주를 신격화하고 하나님이라 부르며, 저주로 신도들을 통제하는가 하면 자녀 관계를 단절할 것을 선포한다.

이들의 포교 수법은 우선적으로 가족 구성원과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적이고 비밀하게 한 번에 한 가정씩 전파해 피해를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여직원들을 이용해 남자들을 뒤편에 빠뜨리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이 같은 이유는 중국 관방에서 조사를 통해 위트니스 리와 호암파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난 후 2017년 9월부터 이름을 호암파 명단에서 삭제했기 때문이라고 하 원장은 말했다.

조유산은 마지막 때에 메시이는 여성으로 온다

고 주장하는가 하면 종말론을 통해 공포심을 조성한다. 2002년에는 34명의 중주 사립들을 납치하기도 했다.

이러한 동방번개에 대해 대만기독교회들은 성명서를 통해 "스스로 '전능신 교회'라는 단체의 그 언행이 성경의 근본적이며, 정통적이고 완전한 가르침과 다름으로 이 조직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다. 국민들이 분별해 그 잘못된 시스템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그 조직이 가져다주는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발표 한 바 있다.

하 원장은 끝으로 "성경을 분별할 줄 알면 이단 사이비 및 사교 집단들을 대처할 수 있다"면서 "동방번개의 지속적인 교세 확장에 대해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영 소장은 '한국교회 이단 사이비 집단과 동방번개와의 비교 대책 전략'에 대해 "우선적으로 동방번개에 대해 연구가들이 세세하게 직접 연구해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교집단의 특징은 전투적으로 교세를 확장에 가는 것이 특징이고 방해가 되는 것은 폭력 등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정기적으로 이단 사이비 사교 집단에 대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열 방침이며, 관련 책자들을 발간해 한국교회에 알릴 방침이다.

사설

핵 폐기 결단 더 늦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지난 9일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문 제기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선의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고 한다. 또 9일 정권 수립 기념식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등장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신전수전 다 겪은 북한이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핵 및 미사일을 지키려 할 것이다. 북한이 정말 신뢰를 얻으려면 말보다는 미·북 회담 당시 약속했던 핵 폐기 프로그램들을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대로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면 된다. 평화와 경제제재 해제 조치를 얻어내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치임에도 자신들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서 남 탓만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도리어 애가 닳아 안보의 추세를 풀어주지 못해 안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북 정책에서 최우선시해야 할 문제에 대한 설문은 북한 비핵화를 꼽은 응답자가 63.8%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북핵 문제를 미·북 문제로 한정 짓거나 북핵 문제 해결 없는 평화협정 체결(38.0%)이나 경험(31.6%)을 서두르는 정책에 많

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 주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방(43.2%) 또한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33.7%)보다 오차 한계를 벗어나 훨씬 높았다. 또한 안보에 도움이 되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응답이 78.3%였고 한·미 관계를 유지(58.0%) 또는 강화(23.5%)해야 한다는 여론도 81.5%에 달했다. 1953년 휴전 후 지금까지 65년 동안 우리가 전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진보 좌파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미국이 우리를 지켜 준 엄연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개성공단 재가동 움직임에 대해 미 의회는 대놓고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법과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이며 재개할 경우 중대한 실수'라고 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을 더 늦출 뿐이다. 우리 아들이 자유 없는 민주주의에서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핵 폐기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해야 할 때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NAP 동성에 성평등 정책 삭제 개정하라

지난 8월 27일 정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을 반대하는 법국민적인 <국민기반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민비)가 발족되었다.

여기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교단총회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교계 연합 단체와 한국교회연론회 한국장로회연합회 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등 연합 기관과 전국 17개 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수호전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 등 종교 단체와 그 동안 동성에 문제를 반대했던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단체별로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동성애대책위원회 비전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한국성과학 연구협회 한국가족보전협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교회법학회 자유와인권연구소 등 법조계를 비롯하여, 중

50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길원평 교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인권정책에 대한 법국가적 종합계획으로, 정부 26개 부처에서 272개의 과제가 추진되며, 이 중에 약 5%는 독소조항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문제점으로,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가짜인권정책에 '성평등'이라는 말이 30번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타고난 성(性)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성으로, 많은 부작용과 혼란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 NAP을 추진하는 법무부가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며,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법무부가 국제인권규범이 차별금지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 140개국으로 68%를 차지하며, 동성결혼 금지하는 국가도 180개국으로 87%를 차지한다. NAP 문제점을 확산시키고, 전 교계의 결집된 힘으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개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회 자유대한지킴이 선교축제 9월 28일 여전도회관

한국선교세계연맹, 일사비전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

한국선교세계연맹(상임대표회장 강봉규 목사, 이하 한선연)은 오는 9월 28일(금) 오후 1시 여전도회관 2층 감마리아홀에서 제3회 자유대한지킴이 선교축제를 개최한다.

한선연은 이번 선교축제를 통해 잘못되어진 이 땅의 음주문화로 인하여 병들어가고 있는 사회전반의 기류를 복음으로 바로 세우려고

한다.

비전음주문화는 한 개인은 물론 사회의 안녕질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전반에 걸쳐 잘못된 방향으로 상당한 변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한선연은 그 밑활이 되어 전인격적인

기독교인들을 양성, 발굴하여 대한의 내일을 튼실히 세워 가는데 뜻을 두고 정진해 가고 있다.

이번 제3회 자유대한지킴이 선교축제는 '자유대한의 정체성 회복'이란 주제로 한선연 주회 비전음주문화중앙협의회, 마리아타를위임심신교회 주관 태권도리더세계선교연맹, (사)녹색환경감시단, 한국검정심문사 등이 협력 하여 치러진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경영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목회자 세미나

- 시 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 대 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공자암, 수원, 하남, 이천, 여주 등에 교회 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
- 강 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 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강사료는 무급으로 하되 간단한 중식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8 전국사모단합대회

강사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임용재 목사
신정리순복음교회

부총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천교회

모시는 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폭염으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사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시는
존경하는 사모님들!

심신의 휴식과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제 8회 전국사모회 단합대회에 사모님들을 초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렘 33:3)는 주제로 준비한 은혜의 자
리에, 전국의 예하성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 주의 사랑으로 친
교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힘을 얻고, 합심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님들의 기도 후원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사모회 회장 윤금자 -

주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렘 33:3)

| 일 시 | 2018년 10월 15일(월)~17일(수) 2박 3일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120(왕림2길 76)

| 대 상 | 예하성 산하 교회 담임목사님 및 부교역자 사모님들

| 등 록 비 | 없음

| 준 비 물 | 성경, 찬송가, 세면도구, 개인용품, 간편한 복장, 신발(관광용)
※ 성막 견학 시에는 등산복 차림, 맨발은 불가함

| 문 의 | 회장 윤금자 사모(010-8616-0514)
총무 신명희 사모(010-5483-4005)

| 후원계좌 | 농협 352-1317-6813-13(김숙향 재무, 010-8372-0091)

2018 전국사모회 증경회장단

증경회장



김양란 사모
(포항안디옥교회)

증경회장



차경애 사모
(진주은평교회)

증경회장



신동신 사모
(청신교회)

증경회장



차추련 사모
(안동성곡교회)

직전회장



한정은 사모
(가평순복음교회)

고문



최해선 사모
(다락방교회)

고문



김양숙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회장



윤금자 사모
(목양제일교회)

2018 전국사모회 임원진

수석부회장



이정화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1부회장



김귀순 사모
(아세아순복음교회)

2부회장



이은숙 사모
(정읍순복음중앙교회)

총무



신명희 사모
(부강순복음교회)

부총무



서수연 사모
(은혜충만교회)

서기



이정희 사모
(순복음은혜의강교회)

부서기



전희진 사모
(순복음은혜교회)

회계



김세희 사모
(괴산순복음교회)

부회계



조순자 사모
(순복음복원교회)

재무



김숙향 사모
(안성평강교회)

2018년도 예하성 전국사모회 단합대회 일정표

시간	요일	10월 15일(월)	10월 16일(화)	10월 17일(수)
07:00~08:00			아침식사	아침식사
08:00~09:00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으로!	자유시간	자유시간
09:00~10:00		※ 집회장소 : 예루살렘성전 ※	관광 출발	경품권 추첨
10:00~12:00			세계성막복음센터 성막견학	찬 양 폐회예배 강사 : 신재영 목사 (교단 총무)
12:00~13: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15:00		접수 및 숙소 배정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관람	새롭게, 활기차게! 사역의 현장으로!
15:00~15:30		찬 양		
15:30~17:00		개회예배 강사 : 조용목 목사님 (교단 정책위원장)		
17:00~18:00		지방회별 소개	저녁식사	
18:00~19:00		저녁식사	휴 식	
19:00~19:30		찬 양	특 강	
19:30~21:00		성령대망회 강사 : 임용재 목사 (교단총회장)		
21:30~22:30		소모임 및 교제	소모임 및 교제	
23:00		취 침	취 침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회

후원 : 총회 및 각 지방회